

자위의 힘으로 승리떨치는 불패의 강국

오늘은 공화국이 새해의 대출력발동기시험에서 단번성공을 안아온 역사적인 날이다.

이 시각 온 나라 인민들은 6년전 백두의 달력과 비범한 과학적예지, 불멸의 애국헌신으로 최후의 역경속에서도 주체적핵강국건설사에 특기할 《3.18혁명》의 위대한 대사건을 안아오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불면불휴의 고교와 실험에 대해 감회깊이 되새겨보고있다.

《3.18혁명》! 외워볼수록, 음미해볼수록 가슴뜨거워짐을 금할수 없다.

지금도 못잊을 그날 새해의 대출력발동기시험분출시합이 그렇게 기뻐하며 발동기연구제작을 위해 심신을 다 바쳐 고심하던 연구사업을 벌려온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을 열싸안아주시고 몸소 등에 업어도 주시며 전사들의 공로를 값높이 평가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뚜렷이 떠오른다.

그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이번 시험에서의 성공은 로켓공업부문에 남아있던 교조주의, 보수주의, 형식주의와 다른 나라의 기술을 답습하던 의존성을 완전히 뿌리뽑고 명실공히 개발창조형공업으로 확고히 전변된 주체적인 로켓공업의 새로운 탄생을 선포한 역사적의의를 가지는 대사건이라고 하시면서 오늘 이룩한 거대한 승리가 어떤 사변적의의를 가지는가를 온 세계가 곧 보게 될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바로 그것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리도 기뻐하신것은 명실공히 개발창조형공업으로 확고히 전

변된 주체적인 로켓공업의 새로운 탄생, 자기의 힘으로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굳건히 지킬수 있는 밝은 앞길이 열렸기때문이다. 그래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해의 대출력발동기시험을 개발성된 3월 18일을 로켓공업발전에서 대박약을 이룩한 영원히 잊을수 없는 날, 《3.18혁명》이라고도 칭할수 있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그토록 기쁨에 넘치시여 말씀하신 것이다.

그날로부터 공화국의 자위적국방력은 비약적으로 상승강화되어 오늘은 반만년민족사에 있어본적 없는 사상초유의 초강력무기들을 보유한 나라, 세상이 부러워하는 무적막강한 자위의 힘을 가진 나라로서 국위와 국광을 만방에 떨치고있다.

세상에는 나라가 많아도 공화국처럼 그 누구의 도움도 바라지 않고 증증첩첩가 모막이나서는 시련과 난관을 뚫고헤치며 하나부터 열까지 자체의 힘으로 자기 령도와 자기 인민의 존엄을 당당히 지켜가는 나라는 없다.

자기의 손으로 마련한 강력한 군사적력이 없으면 나라도 민족의 존엄도, 인민의 행복한 삶도 지킬수 없기에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해방후 주체적인 병기공업창설의 새 역사를 펼쳐주시었다. 절세위인의 령도따라 공화국의 자위적국방력은 비약적으로 상승강화되어 오늘이룩한 거대한 승리가 어떤 사변적의의를 가지는가를 온 세계가 곧 보게 될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바로 그것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리도 기뻐하신것은 명실공히 개발창조형공업으로 확고히 전

변된 주체적인 로켓공업의 새로운 탄생, 자기의 힘으로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굳건히 지킬수 있는 밝은 앞길이 열렸기때문이다. 그래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해의 대출력발동기시험을 개발성된 3월 18일을 로켓공업발전에서 대박약을 이룩한 영원히 잊을수 없는 날, 《3.18혁명》이라고도 칭할수 있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그토록 기쁨에 넘치시여 말씀하신 것이다.

그 어떤 환경과 역경속에서도 언제나 자위의 로신을 굳건히 견지하시며 불패의 힘을 다져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에 대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수령님께서 일찌기 아버지로부터 두 자로의 권총을 물려주시고 《E.T》의 기지를 높이 드신 때로부터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여오신 전 과정에 총대중시, 군사중시의 사상을 일관하게 견지하시고 언제나 군사력을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쏟으셨다고 뜻깊게 교시하시었다.

오늘 공화국은 또 한분의 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무적필승의 초대강국의 기상을 남김없이 떨치고 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키는데 대한 탁월한 로신을 내놓으시고 불과 몇해만에 국가핵무력완성의 역사적인 대업을 이룩하시었다. 이 나날에 《3.18혁명》, 《7.4혁명》, 7.28의 기적적 승리, 《11월대사건》이 려이어 일어나 온 나라 인민에게 승리의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고 적대세력들에게는 무서운 공포를 주었다. 또한 공화국무력의 발전상을 금지높이 보여주는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이 펼쳐지고 극초음속미사일개발을 비롯하여 공화국의 군력강화에서는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적성과들이 려발적으로 기록되었다.

오늘 공화국은 또 한분의 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무적필승의 초대강국의 기상을 남김없이 떨치고 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키는데 대한 탁월한 로신을 내놓으시고 불과 몇해만에 국가핵무력완성의 역사적인 대업을 이룩하시었다. 이 나날에 《3.18혁명》, 《7.4혁명》, 7.28의 기적적 승리, 《11월대사건》이 려이어 일어나 온 나라 인민에게 승리의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고 적대세력들에게는 무서운 공포를 주었다.

또한 공화국무력의 발전상을 금지높이 보여주는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이 펼쳐지고 극초음속미사일개발을 비롯하여 공화국의 군력강화에서는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적성과들이 려발적으로 기록되었다.

지난 2월에 진행된 조선인민군장군 75돛경축 열병식에 강군의 위용떨치며 도드라진 각 군종, 병종대오들과 첨단무장장비들의 장엄한 흐름은 지금도 커다란 여론과 진폭으로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고있다.

공화국군사에 특기할 그날들, 강대한 공화국의 존엄과 사상초유의 힘을 한가슴에 안아보던 려사의 그 순간순간들을 그려볼수록 온 나라 인민은 우리 국가의 강대한 힘을 마려주신 절세위인들을 우러르며 고마움과 격정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린다.

우리의 존엄을 짓밟는것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라고 선언하시며 무적필승의 국력을 떠올리시기 위해 산악같은 파도가 요동치는 캄캄한 바다길을 헤쳐가시었고 허리치는 바다물속에도 남뉘저 들어서 시였으며 위협천만 화선에

도 서슴없이 나서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생결단의 헌신과 로고를 누구나 가슴뜨겁게 되새기고있다.

에나 지금이나 지정학적으 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나라가 바로 조선이다.

태평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전략적위치에 있고 자기를 지킬 힘이 없어 침략자의 발굽에 무참히 짓밟혀야 했던 어제의 약소국이 오늘은 그 어떤 침략세력도 감히 넘볼수 없는 나라, 천하무적의 강국으로 추겨올라 행성을 굽어보고있는것이다.

민을것은 자기 힘밖에 없다. 존엄과 명예도 강자에게만 있고 혁명위업의 정당성도 이겨야만 증명되며 자위가 있어야 자주도 자립도 있다. 어떤 값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와 목숨을 바쳐서라도, 후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강해야 하고 우선 강해지고야야 한다.

든든한 반석위에 세운 집에 영원한 만복이 깃들듯이 나라도 강국부터 되어야 무궁번영의 부국도 될수 있다.

이것이 공화국의 드립없는 신념이고 의지이다.

지금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이 내외의 규탄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규모복합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는 등 반공화국전쟁대결행동에 광분하고 있지만 그것은 공화국의 무적막강한 위력에 질겁한자들의 단말마적발악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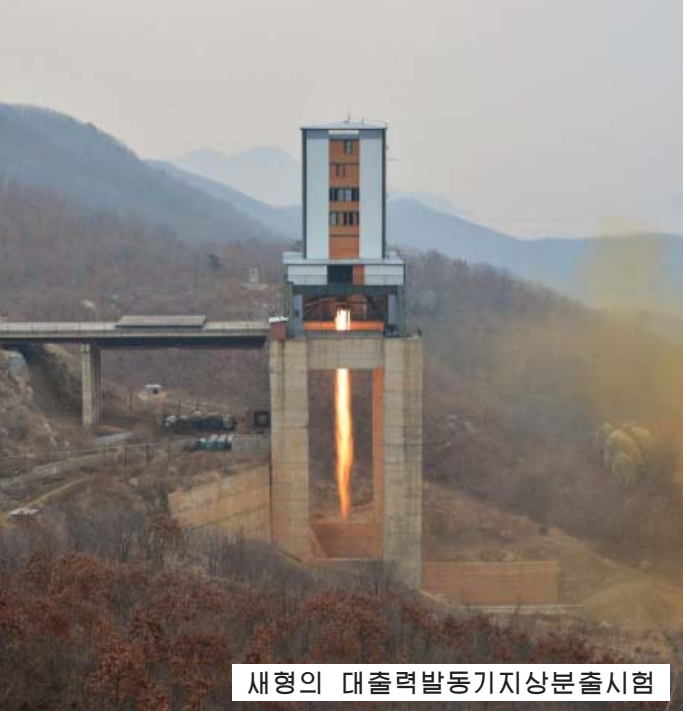
불을 즐기는자 불에 타죽기마련이다.

세인이 우러르는 절세위인의 령도따라 공화국은 어제도 오늘도 매일도 영원히 자위의 힘, 무적의 초강력으로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 발전권을 굳건히 수호해나갈것이며 그 길에서 모든 승리와 영광을 맞이할것이다.

본사기자 유금주



조선인민군장군 75돛경축 열병식



새해의 대출력발동기시험분출시합

전략순항미사일 수중발사훈련 진행



전략순항미사일 수중발사훈련이 3월 12일 새벽에 진행되었다. 발사훈련에 동원된 잠수함 《8.24영웅함》이 조선동해 경포만수역에서 2기의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하였다. 발사훈련을 통하여 무기체계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공화국핵억제력의 또 다른 중요구성부분으로 되는 잠수함부대들의 수중대지상공격작전태세를

검열판정하였다. 발사훈련은 자기의 목적을 성과적으로 달성하였다. 발사된 2기의 전략순항미사일은 조선동해에 설정된 1,500km계선의 거리를 모의한 《8》자형비행체도를 7,563s~7,575s간 비행하여 표적을 명중타격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발사

훈련결과에 만족을 표시하였다. 수중발사훈련을 통하여 미제와 남조선피괴역도들의 반공화국군사적준동이 로골화되고있는 현정세를 시종 압도적인 강력한 힘으로 통제관리해나갈 우리 군대의 불변한 립장이 명백히 표명되었으며 다양한 공간에서의 핵전쟁억제 수단들의 경성적가동태세가 입증되었다. [조선중앙통신]

서부전선의 중요작전임무를 담당하고있는 군부대에서 미사일발사훈련 진행



서부전선의 중요작전임무를 담당하고있는 조선인민군 미사일부대에서 3월 14일 구부대교육을 위한 미사일시범사격훈련을 진행하였다. 시범사격훈련을 군부대관 각 구부대의 해당 지휘관들과 전투원들이 참관하였다. 훈련에는 군부대관 제11화력승격중대가 참가하였으며 지상대지상전술탄도미사일 2발을 증등사거리체제로 교육시범사격을 진행하였다.

황해남도 장연군일대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611.4km 떨어진 함경북도 청진시 청암구역 방진동일 목표표적 피도를 정밀타격하였다. 군부대장은 싸우면 적을 반드시 괴멸시킬것이라고 하면서 당의 훈련혁명방침을 높이 받들고 모든 화력승격중대들에 대한 훈련강도와 요구성을 더욱 높여 임의의 순간에 임의의 화력승격임무도 원만히 수행할수 있는 능력을 철저히 갖추어나갈것이라고 다짐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나라의 군력을 강화하는 길에서 ◎

전략군의 싸움준비완성을 알리는 포성

주제103(2014)년 전승절을 맞는 격동적인 시기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미사일발사훈련을 지도하시었다. 뜻깊은 전승절을 하루 앞두고 진행된 이날의 발사훈련에서도 화력타격부대의 전투력과 전술미사일의 전투적 성능이 완벽함것으로 평가되었다.

발사 전 과정을 지도하시면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제 전략군이 현대전에서 그 어떤 화력타격임무도 막힘없이 수행할수 있게 준비되었다고, 전승절을 맞으며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도전해 나서는자들은 그가 누구든 최후종말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성공의 기쁨도 함께 나누시며

려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었다. 이날 그이께서는 탄도탄수중발사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단행하고 귀환하는 전략잠수함을 항구에서 맞이하시고 그들과 함께 려사적인 성공을 축하하여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위대한 사랑과 혈연의 정으로 품어주고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과 함께

시대의 부름 - 백두산영웅청년정신

수도건설의 새 전구에 용약 떨쳐나선 열혈의 젊은 가슴들을 용암처럼 끓여 하는 시대의 부름이 시대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서포지구 세거리건설공사에서 하신 격동적인 언설에서 온 나라의 돌격전구마다에 로인의 불길마냥 파급된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은 우리 시대 청년건설자들이 지닌 불굴의 투철과 투쟁기개의 상징으로, 그 한을 박차고 무쌍하게 밀려서는 사회주의조선의 불가항력의 한 부분으로 되고있고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백두산영웅청년정신! 혁명의 성산에 삶의 좌표를 세우고 청춘의 용솟음과 함께 백두대지에 신념의 언제, 대가넘비적수력구조물을 밀며세운 백두청춘들의 불굴의 군성이 이 숭고한 부름에

기쁨도 시련도 이겨내며 헤쳐온 탄도탄개발의 고심참담했던 나날들이 눈에 밝혀와 장내는 눈물의 바다를 이루었고 이들을 바라보시는 그의 눈가에도 뜨거웠듯이 얼어올랐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발사시험발사의 대성공을 거듭거듭 높이 평가하시면서 나라의 국방과학기술발전을 위하여 헌신분투하고있는 이런 미더운 애국자들이 있기에 우리 당이 강하고 우리 조국이 더욱 존엄높고 우리 혁명이 승승장구하고있는것이라고 신심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백두대지에서 발취한 조선청년특유의 불굴의 기상을 더욱 승화시켜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행정에 청년들이 애국열의를 다스리 높이를 발휘할수 있는 새 활무대, 거창한 청년관을 펼쳐놓자는것이 절세의 위인의 숭고한 뜻이고 의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은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 아니 온 나라 청년들이 사회주의 국가의 무궁한 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을 총폭발시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갈 길은 일념을 안고 산악같이 일떠다.

청춘들의 리상과 포부, 담력과 배짱, 용감성과 위훈으로 머지않아 수도의 북쪽판문에 펼쳐지게 될 웅장화려한 새 거기를 눈앞에 그려보는 인민의 가슴가슴은 무한한 격정과 흥분으로 설레이고있다.

김학철